



초콜릿 매출 대목인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고급 수입 제품부터 직접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DIY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하는 '파베초콜릿 DIY 세트'

수입·실속·DIY '초콜릿 3색 대전'

(Do-It-Yourself)

밸런타인데이 선물, 뭘 고르지요?

대형마트, 초콜릿 수입상품 집중배치 최대 50% 할인·1+1 기획상품으로 승부 편의점, 타로·의리 초콜릿 등 차별화 온라인몰, 손수 만든 'DIY 세트' 인기

달달한 초콜릿 선물 해볼까. 밸런타인데이 가 열을 앞두고 다가오면서 연인 혹은 가족, 직장동료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다양한 선물이 있지만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초콜릿이다. 유통업체도 대목인 '3대 데이'(밸런타인·화이트·빼빼로) 중 하나인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고급 수입 초콜릿부터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Do-It-Yourself) 선물까지 다양한 제품을 준비했다.

● 대형마트-수입 초콜릿 비중 늘려

대형마트는 수요가 늘고 있는 수입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의 밸런타인데이(2/1~14) 시즌 매출을 보면 수입 초콜릿 비중은 꾸준히 늘어왔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국산을 뛰어 넘었다. 올해는 매출 구성비가 6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14일까지 관련 기획전을 연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수입 상품을 지난 해보다 35%가량 늘려 정상이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시모아 씨셀 초콜릿(200gx2개)을 9900원에, 페레로 로쉐 T-30(375g)을 1만1900원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도 14일까지 220여종의 초콜릿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대표제품은 마테즈 트리플 초콜릿으로 프랑스에서 직수입해 온 상품이다. 마테즈 트리플 골드와 마테즈 트리플 실버가 각각 1만원(400g)으로, 14일까지 구매 시 1+1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밸런타인데이 기획전



CU 페레로로쉐 5입

● 편의점-실속과 차별화에 초점

편의점은 실속상품과 차별화에 초점을 뒀다. 연인 뿐 아니라 친구나 직장동료, 가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추세가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GS25가 1월2일부터 8일까지 내부 직원 739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 선물 관련 설문(중복 답안 형식)을 한 결과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 51%, 연인(부부) 42%, 친구 23%, 직장동료 13% 순으로 나타났다.

GS25는 매일유업과 손잡고 페레로로쉐 백을 제작해 전국 매장에 비치한다.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의 로쉐를 구매해 백에 담아 선물할 수 있다.

씨유는 실속에 색다른 재미를 더한 'CU 타로 초콜릿'을 선보인다. 페레로로쉐와 허쉬

등 초콜릿을 선별해 타로 콘셉트의 패키지로 구성된 상품이다. 안에는 타로카드 행운권이 들어 있어(소규격 1종 제외) 카드 뒷면에 QR 코드를 스캔하면, 타로점괘 등 운세를 볼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차별화를 위해 '의리' 초콜릿을 내놨다. 2000원 가격의 가나초콜릿에 '착각하지마' '오다가 주웠어' 등 재미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상품이다.

미니스톱은 전체 기획 상품 중 60%를 1만원 미만으로 내놨다. 또 미니스톱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페레로로쉐와 가나초콜릿 등에 포장을 더한 차별화 상품도 준비했다.

● 온라인몰-직접 만들어 선물한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은 채널 특성에 맞춰 수입초콜릿부터 실속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한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트렌드는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 주는 DIY 제품이다. G마켓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둔 최근 일주일(1/27~2/2)동안 초콜릿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DIY 상품은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G마켓은 큐레이션 쇼핑몰 사이트 G9를 통해 '초코천사 DIY 초콜릿'을 49% 할인된 1만3500원에 제공한다. 11번가도 '큐앤 베이커 2단엔틱 초콜릿 DIY세트'를 2만 2900원, '초코천사 티 파베 초콜릿 DIY 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한다.

소셜커머에서도 DIY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쿠팡은 12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스틱 초콜릿과 수제 초콜릿, 초코 브라우니부터 직접 만들 수 있는 DIY세트를 판매한다. 티몬도 기획전을 마련하고 생초콜릿, 캐러멜, 브라우니 등 종류별로 다양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DIY 초콜릿 세트 등을 판매 중이다. 위메프도 초콜릿 만들기 DIY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자가면역질환 베체트병, 한방치료가 효과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가 고질적 됐다. 과로로 인한 피로가 나타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만성피로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피로의 원인은 다양한데, 근본 원인은 신체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다.

베체트병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베체트병은 생소하다. 베체트병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베체트병의 증상은 입 속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내염에 대해 사람들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인한 증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 질환이 점점 더 악화되곤 한다.

구내염으로 시작하는 이 질환은 눈의 염증, 음부개양 등 신체 곳곳에 염증을 발생시켜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인들은 업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치료를 병행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베체트병은 어떻게 치료해주는 것이 좋을까?

● 한방치료인 AIR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증상개선 가능

베체트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치료는 질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치료를 시행하는 AIR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이지스한의원에서 시행하는 AIR프로그램은 한방치료다. 초기 3개월, 중기 6개월, 말기 3개월 등 총 1년간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질환을 다스린다. 그리고 면역력양이나 붓목약침, 진수고, 왕뜸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이러한 AIR프로그램 치료는 자가면역질환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치료 후 환자 스스로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소 면역관리를 잘해 이러한 면역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일상 속 생활습관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숙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이지스한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 위치해 있다. 평소 베체트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찾기 바란다.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건조한 피부의 또다른 적 '뜨거운 난방'

■ 겨울철 '방콕족'이 알아야 할 실내 피부상식

밤10~새벽 2시, 피부재생 골든타임 활용 미세먼지 모공속에 쌓이면 피부손상 우려 꼼꼼한 클렌징으로 피부 노폐물 제거해야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일명 '방콕족'이 증가한다. 방콕족은 차가운 바람, 자외선에 대한 걱정은 덜하지만 피부 관리를 등한시 할 수 없다. 실내에도 피부의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겨울철 방콕족이 꼭 알아야 할 실내 피부 관리 상식을 소개한다.

● 실내 미세먼지 주의보...철저한 클렌징 필수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긴 겨울철, 실내 공기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청소나 요리를 할 경우 실의 못지않게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실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입자가 작아 모공속에 쌓이기 쉽고, 이는 피부 노폐물 배출을 막아 피부 건강을 저해한다.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클렌징이 중요하다. 설화수 '순행클렌징폼'은 피부 구성단위인 아미노산 유래 세정 성분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수분막을 남기는 한방 클렌징폼이다. 풍성한 거품이 깨끗하고 산뜻하게 세안을 시켜주고 부형초와 울피, 천연 폴리머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

● 골든타임 케어도 수분·영양 공급 극대화

야외에 찬 바람이 있다면 실내에는 뜨거운 '난방 바람'이 있다. 실내 난방은 피부 속 수분을 뺏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이 떨어져 노화가 촉진된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공급이 필수다. 특히 겨울철에



▲참조 '플레지엄 미드나이트 스페셜 크림'

▲설화수 '순행클렌징폼'

는 밤이 길어지는 만큼 밤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스킨케어가 가능하다. 참조의 '플레지엄미드나이트스페셜 크림'은 일명 '10시 크림'이라는 애칭이 붙은 나이트크림으로 잠들기 전에 사용하면 수면시간 동안 영양을 공급해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꿔준다.

● 피부 면역력저하... 즉시 트러블 케어 필요

겨울철엔 실내의 온도가 최대 25도까지 차이난다. 이런 기온 차이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 트러블을 유발한다. 실외의 차가운 공기로 인해 수축되었던 혈관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급속히 확장돼 피부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피부 트러블은 방지하면 풀거나 흉이 질 수 있어 빠른 진정이 최선이다.

닥터자르트 'Ctrl-A 스팟 아웃'은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면서, 막혀있는 모공과 피지 또한 컨트롤해 트러블 예방 효과도 있는 부분 스킨케어 제품이다. 트러블 부위에 톡톡 발라주는 스틱형 제품으로 위생적이며 휴대가 간편하다.

김재학 기자

축산물에도 '안심 먹거리' 바람이 분다

한우·돼지고기 매출 감소 불구 브랜드는 강세 롯데마트 '안전성 검증된 우수 축산농가 인기'

축산물에도 '안심 먹거리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해 한우 매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8% 감소했으며, 돼지고기도 5% 가량 판매가 줄었다. 축산업계의 암소와 양돼지 감축사업의 영향으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반적인 국산 축산물

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정 농가에서 자체 사육 시스템을 통해 사육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드 축산물'의 강세가 돋보였다. 지난해 롯데마트의 '브랜드 한우'는 23.9%, '브랜드 돼지고기'는 3.3% 매출이 늘었다.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축산물에는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롯데마트는 사육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한 '진심 축산물'을 5일부터 제조점을 제외한 전국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 '진심 축산물'은 롯데마트가 우수 축산농가를 지정하고 규정한 시스템을 통해 사육된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다. '지리산 진심 한우'는 지리산 자락의 전남 남원, 순천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300여 곳의 축산농가에서 키운 한우 중 '1+ 등급' 이상만 선별한 프리미엄급 브랜드 한우로 육질과 마블링이 뛰어나다. '웰팜 진심 한돈'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 중 우수품종을 선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전국 10개 롯데마트 지정 농장에서 사육된 1등급 이상 돼지고기다.

이밖 롯데마트 신선식품부문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진심 축산물'을 통해 축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진심 축산물' 론칭 기념으로 5일부터 11일까지 총 100톤 물량의 한우와 한돈을 시세 대비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진심 축산물 특가전'을 진행한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스피포2000' 20억 주인공 나와 1등 복권 2매 한세트...즉석복권 최고 당첨금

즉석복권 사상 최고 당첨금이 걸린 스피포 2000에서 20억원 1등을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스피포 2000 16회차에서 1등 복권 2매를 한 세트로 구매해 무려 20억원에 당첨된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3일 밝혔다. 스피포2000 16회차는 1등 복권 4매를 무작위로 발매했던 기존과 달리 2매를 한 세트로 만들어 당첨되면 매당 10억씩, 최대 20억 원의 행운을 얻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억원 당첨 주인공인 직장인 A씨는 "아는 동생과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세트를 샀는데 두 장 모두 1등에 당첨돼 믿기지 않았다"며 "당첨 이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스피포2000 복권은 현재 80% 이상이 팔린 상태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1등 복권 두 장이 한 세트 남아 있다. 한 장에 5개입, 2개입을 즐길 수 있는 복권 2종으로 매당 2000원에 판매한다. 전국 복권 판매점과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판매 기한은 6월1일까지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